

도, 미래 먹거리산업 국비 반영 사업 탄력

정부예산안에 전략산업 분야 1,853억 반영 m-RNA 백신 실증지원 기반구축 등 63건

전남도의 미래를 책임질 전략산업 분야 사업이 2022년 정부예산안에 대거 반영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전남도는 2022년 정부예산안에 전략산업 분야 국비 1,853억 원이 반영됐다고 1일 밝혔다.

‘m-RNA 백신 실증지원 기반 구축’ 등 신규사업 14건을 포함해 미래 신성장 산업과 주력산업 육성사업 63건이 포함됐다. 모더나, 화이자 등 글로벌 제약사의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반 기술인 m-RNA를 활용한 ‘m-RNA 백신 실증지원 기반 구축’ 14억 원을 포함해 ‘진균류 바이오

헬스 소재 상용화 지원’ 26억 원 등이 신규 반영돼 K-글로벌 백신 허브 조성에 속도를 내게 됐다.

암·치매 등 난치성 질환 면역치료제 개발의 국가 컨트론타워인 ‘국가 면역치료 플랫폼 구축’ 103억 원, 백신 개발 컨설팅과 임상시험, 품질검사 등 백신 제품화 지원을 위해 구축 중인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건립’ 96억 원 등이 계속사업으로 반영, 내년 시설 개관이 차질 없이 이뤄질 전망이다.

‘나주에너지밸리강소연구개발특구운

영’ 40억 원, ‘소프트웨어 미래재용 사업’ 10억 원 등을 통해 에너지, ICT 등 첨단산업 R&D 지원도 지속 추진한다.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 자원 순환경제를 활성화할 ‘에너지저장 공적축매 재자원화 기술개발 및 실증’ 33억 원 등이 신규 반영돼 온실가스 저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 교통수단인 드론·항공 분야에선 ‘미래형 플라잉카 핵심부품육성 기반 구축’ 20억 원, ‘eVTOL 자율비행 핵심기술 및 비행안전성 운용성 시험평가’ 58억

원 등을 통해 차세대 드론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한다.

e-모빌리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초소형 e-모빌리티 부품 시생산 지원기반 구축’ 53억 원 등으로 e-모빌리티 지역특화를 위한 산업기반 확충 및 양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전남 주력산업인 조선 분야는 국제 환경 변화에 대응한 사업 다각화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친환경선박 극저온 단열시스템 국산화 실증기반 구축’ 68억 원, ‘조선해양 친환경 특화기술

공유플랫폼 사업’ 26억 원 등이 반영됐다.

친환경선박과 관련해 ‘수소추진 레저저선 및 기자재 개발’ 19억 원 등이 신규 포함돼 전남 친환경선박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밖에 철강석유화학 산업과 광양만권 산단 대개조 사업을 위한 ‘수송기용 마그네슘 소재 실증기반 조성’ 18억 원,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147억 원 등이 반영돼 산업 고도화와 친환경 스마트산단으로의 전환이 기대된다.

주순선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전략산업 분야 국비 확보를 통해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를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시의회, 도시공사·김대중센터 사장 인사특위 구성

김익주·김동찬 위원장 선임

광주시의회는 1일 공개 모집 중인 광주 도시공사와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도시공사 인사특위는 김익주(위원장)·최영환(부위원장)·김점기·박미정·장재성·조석호·황현택 의원으로 구성됐다. 김익주 위원장은 “광주도시공사는 광주

시의 주요 개발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의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 공기업이다”며 “후보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인물인지 철저한 인사 검증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중컨벤션센터 인사특위는 김동찬(위원장)·임미란(부위원장)·김나운·김익주·김학실·정무장·정순에 의원으로 꾸려졌다. 김동찬 위원장은 “김대중컨벤션

센터는 관광 산업,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 등 다양한 경제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공기업이다”며 “능력과 자질을 갖춘 책임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인사 검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도시공사와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 인사청문특별위는 후보자의 공모 절차가 끝나는 대로 10월 중에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황애란 기자



광주시의회는 1일 오전 시의회 2층에서 김용집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활동 촬영 및 영상 제작·편집 공간인 ‘공감 스튜디오’ 개소식을 가졌다. /광주시의회

도의회 2대 대변인에 조옥현 의원

전남도의회는 1일 제2대 대변인에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2)을 선임했다.

11대 의회 후반기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 의원은 앞으로 대변인으로서 도의회 주요 시책과 의정활동 홍보 등 중책을 수행하게 된다.

조 의원은 전남도 자치분권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코로나19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맡아 현장에서 도민들과 활발히 소통, 대변인으로 책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옥현 의원은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소통 창

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도민과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등 엄중한 시기를 이겨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전남매일 일자리 연중 캠페인

활기찬 경제도시 남구
행복한 우리 남구
Gwangju Namgu

미래신산업 일자리 창출

광주남구가 앞장서겠습니다!!

열악한 지역 인프라의 한계를 극복하고
에너지, 문화·예술 분야 일자리창출로
광주 제1의 경제·문화 중심도시 조성

- ~2021 광주 에너지밸리 조성
도시첨단산단(15만평), 에너지밸리 일반산단(28만평)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국제비즈니스 환경조성
- 2018-2026 대규모 도시재생뉴딜사업
양림동, 사직동, 백운광장 추진중(1,299억원)
송암동, 방림동 공모예정(공모신청 시 600억원)
- ~2021 광주실감콘텐츠 큐브(GCC) 건립
노후된 송암공단을 첨단과학과 문화가 융합된
문화콘텐츠산업의 거점지로 조성 1046억원 투입
- ~2021 송암산단 문화융복합 4차산업 거점 지조성
CG이관센터 중심으로 투자진흥지구 확대 지정되어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적 준비, 고부가가치 청년일자리 창출

광주광역시남구

‘공감스튜디오’ 개소... 의정활동 촬영·영상 제작

시의회, 시민 소통 강화

광주시의회는 1일 오전 시의회 2층에서 김용집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감스튜디오 개소식을 개최했다.

공감스튜디오는 김용집 의장이 지난해 7월 취임 후 시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제안, 시의회 2층 유휴공간을 리모델

링해 구축했다. 스튜디오·편집실·자재실로 구성됐으며 스튜디오에는 최대 3명까지 출연할 수 있는 촬영세트와 크로마키 스크린, 방송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공감스튜디오는 영상 제작 및 인터뷰 촬영, 의정활동 영상물 제작·편집 등을 할 수 있는 영상촬영 전문 공간이다. 코로나 19로 인해 온라인·비대면이 활성화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공감스튜디오’가 널리

활용되어 시의회의 시민들의 소통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은 “지금의 코로나 위기상황에서 시민들과 직접 만나기 어렵지만, 공감스튜디오를 소통 플랫폼으로 적극 활용해 시민과 의원분들이 조금 더 활발하게 소통하고 시민들의 뜻을 잘 반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김익주 시의원 “어등산 관광단지 공공개발 추진해야”

광주시의회 김익주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1)은 1일 지지부진한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공공개발 추진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임시토론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어등산 개발사업이 표류해서는 안 된다”며 “광주시나 사업자가 오직 공공성과 관광단지 조성이라는 사명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발 주체에 대해 시와 민간기업의 공동 개발 방식이 다수였다는 시의회 여론조사 결과를 들며 “법령을 준수하고 공모

지침에 따라 시민이 원하는 공동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최근 이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인 서진건설에 협상 결렬을 통보하고 직접 공공개발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의원은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

은 강력한 추진력과 행정 전문성, 사업의 경험이 절실한 요구된다”며 “어등산 개발 TF팀을 만들어 도시철도 2호선 사업과 같이 이용성 시장이 끝장을 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군부대 포 사격장으로 황폐화한 어등산 일대 41만7,500㎡에 휴양시설, 호텔, 상가 등을 갖춘 유원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2005년 계획 수립 이후 여러 차례 협약과 파기가 이어지는 동안 골프장만 들어섰을 뿐 진척이 없다. /황애란 기자



한국에너지공대 육성협력위 만든다

이현창 도의원, 대학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내년 3월 개교하는 한국에너지공대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조례가 만들어진다.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는 1일 상임위를 열고 이현창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례)이 대표 발의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의, 본회의에 상정했다.

조례안은 나주에 설립되는 한국에너지공대가 전남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에너지 산업 연구와 기술 개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육성 지원의 근거 등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도지사는 에너지공대의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방안과 교원 및 학생의 해외교류, 대학 육성 협력위원회 구성 등 회의에 상정했다.

했다.

대학육성협력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되면 에너지공대 관련 기관 단체, 기업의 임직원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조례안이 내년 나주에 개교하는 한국에너지공대가 전남에 뿌리내리고 세계적인 에너지 대학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광주지역 김밥 식중독균 ‘안전’

시 보건환경연구원, 66곳 검사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이 고온다습한 날씨로 식중독 발생 우려가 큰 8월 한 달간 즉석 섭취 식품인 김밥류를 수거해 주

요 식중독원인균을 검사한 결과 안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사 대상은 광주지역 5개 자치구 내 즉석 조리·판매업소 66곳에서 수거한 김밥 71건이다. 주요 식중독원인균을 검사한 결

과, 71건의 김밥에서 살모넬라, 장출혈성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업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실천 가능한 손 씻기, 익혀 먹기, 끓여 먹기, 세척·소독하기, 조리 기구 등의 구분 사용하기, 보관온도 지키기 등을 준수해야 한다. /황애란 기자